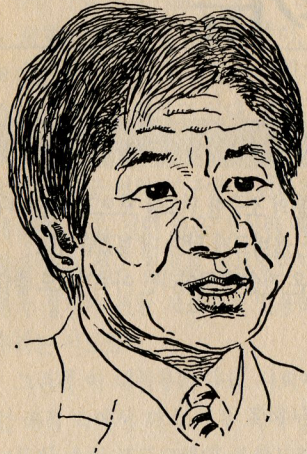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거듭남을

노무현 / 국회 의원



정주영 씨로 상징되는 독점 재벌에 맞서 백 일이 넘는 파업 투쟁을 전개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지금은 회사측의 요청으로 투입된 경찰 병력에 의하여 자신들의 일터를 점령당한 현대 노동자들의 지친, 아니 더욱더 가슴깊이 북받쳐 오는 분노를 참고 있는 모습들을 떠올릴 때 또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점 재벌의 온갖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백여 일이 넘는 파업 투쟁

을 전개한 것은 2천5백만 노동자들의 선봉에 선 투쟁이었으며, 한국 노동 운동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영웅적 투쟁이라는 칭송으로 위로를 대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사대의 거듭되는 테러에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식칼에 찔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노동자들의 상처를 감싸 안은 몸뚱아리에 또 다시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이 피부어지는 현실에 가슴아파할 것인가.

경찰 병력 투입 10여 일째라는 현대중공업과 그 일대인 울산 동구 지역은 계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울산 동구로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목에는 진을 치고 검문 검색하는, 수배자와 외지인을 찾기에 혈안인 전투 경찰에 의하여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경찰의 검문 검색을 통과하여 들어간 울산 동구 일대는 숨통이 조여 오는 느낌이었다. 20여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1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거리를 온통 전투복이 뒤덮고 있는 모습이었다.

80년의 '광주'가 89년에 노동자 거주 지역인 울산 동구에서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공수 부대의 군화발 대신 안방에까지 들이닥친 전투 경찰의 군화발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어머니 등에 업힌 어린이가 최루 가스에 질식해 병원에 실려가

는데 파업 노동자들의 출근율에만 신경을 쓰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80년 5월의 '평온하면 서도 조금 시끄러운' 광주의 모습을 그린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전투 경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지역 주민의 하소연과 현대중공업에 경찰을 투입할 때 농성 노동자들이 다 빠져 나간 것을 알고도 최루탄을 쏘며 육해공군 합동 작전같이 빈 집을 점령해 버리는 '과대망상증'을 지켜본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은 '정치의 부패'를 말하여 주는 것이었다.

국회 의원들이 지금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질타에 말 한 마디 할 수 없었다.

또 다시 5공화국 시절의 통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주영 씨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것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두 가지는 일치한다는 표현이 옳바를지도 모르겠다.

일흔을 넘으신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의 일념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을 실정법 위반이라 하면서 안기부가 구속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느낌도 마찬가지였다.

방북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추상적인 '정부의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찬양까지 했다는 정주영 씨(시류에 따른 말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는 법의 망을 피해 나가고 전민련 고문인 문익환 씨는 구속되는 것은 어디서 오는 차이인가.

민간인인 정주영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대로를 막아서는 안 되며, 정부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일치하는 대북 창구 일원화라는 반통일적 발상을 하루 빨리 깨야 한다는 충고일 뿐이다.

그러나 '구속'의 열병은 곳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하여 20여 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20여 명이 수배 상태라고 한다.

전민련 이부영 의장의 구속 사유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한 것이 '제3자 위반'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주변 동지들의 구속으로 쓰라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여,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다. 아픔과 기쁨이 어우러지는 노동절을 맞이하기 바란다. ✎